

최근 經濟動向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一. 주요 업종별동향

◇ 자동차

기아그룹 부품협력업체의 연쇄도산에 따른 부품공급의 차질과 일부 부품업체의 한시적 타업 등으로 지난 9월중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0.2% 감소한 228천대에 그쳤다.

국내 시판은 새로운 할부판매제의 실시 등 각 업체마다 치열한 판매활동을 벌여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한 136천대에 이르렀으나 전월보다는 크게 감소하였다.

차종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소형승용차인 ATOZ와 SUVs(Sports Utility Vehicles)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중 소형 승용차도 신할부판매제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5.4% 증가한 110천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商用車의 내수는 일부 부품업체의 도산 등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버스와 트럭의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9%, 14.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한 2만6천대에 그쳤다.

수출에 있어서는 대우자동차의 신차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출 환어음의 할인거부와 수출신용장의 매입기피 등으로 기아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줄어 전년 동월대비 6.1% 감소한 88천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유럽과 북미지역으로의 수출이 對일본차 가격경쟁력 약화와 기아자동차의 수출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8.5%, 18.4% 감소하였고,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도 동 지역의 통화위기에 따른 경기하강세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7.5% 감소한 3천대에 그쳤다. 그러나 동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은 對폴란드 輕車수출의 호조와 중남미지역으로의 수출, 특히 브라질로의 輕型버스 수출호조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각각 26.1%, 9.5%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기아자동차의 부도사태를 계기로 부품업체의 납품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자동차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활기를 띠고 있어 만도기계는 최근 GM社와 자동차 조향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Ford社와도 合作으로 조향장치 생산공장을 국내에 설립할 예

자 동 차 (台, %)

	1996. 9월		1997.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228,466	3.2	13.7	228,038	△2.5	△0.2	2,095,124	2.2
• 出 荷	212,176	1.8	4.8	223,789	△8.6	5.5	2,099,337	4.1
(內 需)	118,983	△2.5	△4.8	136,268	△10.9	14.5	1,176,268	△1.3
(輸 出) ^{註1)}	93,193	7.8	20.4	87,521	△4.7	△6.1	923,069	11.9

註1) 자동차공업협회자료로 관세청 수출통계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

정으로 있으며 또 미국의 다국적 부품업체인 이튼社와도 자동차용 벨브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원공조도 중국에 자동차용 에어컨 생산을 위한 합작공장을 설립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자동차 Big3에 부품납품을 위한 교섭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전기·전자

9월중 전자산업 수출은 가정용전자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자와 전자부품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한 3,613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9월까지의 수출누계도 30,448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여 반전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용전자의 수출이 무선통신기와 컴퓨터의 수출증가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28.8% 증가한 904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전자부품의 수출도 반도체수출이 PC의 고성능화에 따른 대당 메모리용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6% 증가한 1,508백만달러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한 2,16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용전자의 수출은 냉장고를 除外한 주요 가전제품의 수출이 모두 저조하여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한 512백만달러에 그쳤다.

◇ 일반기계

9월중 국내 기계수주는 민간제조업의 발주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력업 등 공공용부문에서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으며, 3/4분기까지는 제조업부문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부문의 기계수주는 한보, 기아 등의 연쇄부도 사태로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설비투자 역

시 부진을 면치 못해 석유정제, 자동차, 식료품 등의 발주를 중심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11.2% 감소하였고, 3/4분기까지의 누계에서도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였다.

9월중 일반기계의 수출은 신시장 개척,アフター서비스 강화 등 업계의 활발한 수출확대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한 65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상반기중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1.9% 감소하였음에도 3/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22.1% 증가하였다. 기종별로는 화학기계, 농기계,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의 9월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3.6~191.2%로 크게 증가한 반면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및 운반하역기계 등의 수출은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21.4%, 9.3%, 7.2% 감소하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국내경기의 침체 및 대기업의 잇단 부도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19.7% 감소한 1,293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2.0%,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기종별로는 섬유기계와 제지인쇄기계가 각각 23.4%, 42.5%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 외에는 냉동공조기계, 운반하역기계, 화학기계, 금속공작기계, 농기계, 건설광산기계 등이 8.7~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공작기계업계는 턴밀(Turnmill) 기능이 있는 선반, 태핑(Tapping)기능이 있는 머시닝센터 등 한 대의 기계로 두 대 이상의 성능·효과를 낼 수 있는 다기능 복합적 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 철강

지난 9월의 철근과 形鋼의 품귀현상 타개를 위해 풀가동에 들어간 전기로 업체들이 전년동월대비 37.8% 증가한 1,538천M/T의

粗鋼을 생산한데 힘입어 전체 조강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17.6%나 증가한 3,572천M/T에 달했다.

轉爐업체의 조강생산은 2,034천M/T로서 지난해 9월의 대폭 감소에 따른 반작용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0% 감소한 예년 수준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증설 공장의 최소 가동률 유지를 위한 생산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4분기까지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31,168천M/T에 달하였다. 9월중 철강재 내수는 건설공사의 호조로 철근과 形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한 3,112천M/T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재류의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3/4분기까지의 내수 누계는 9월의 내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年初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27,795천M/T에 그쳤다. 이와 함께 수출은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수출가능 물량이 늘어난 열연강판, 냉연강판의 호조로 9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535백만달러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수요 위축으로 감소추세를 이어 오던 수입은 9월 중에도 620백만달러에 머물러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포항제철은 年産 1,000천M/T 규모의 포항 3厚板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전체 中厚板 생산능력을 3,360천M/T으로 확대시켰다. 造船用 일반강 생산에 주력하게 될 이 공

장이 준공됨으로써 구독난을 겪고 있는 국내 中厚板 수급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석유화학

9월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과 출하는 최근의 설비능력 확충과 수출증가로 물량면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내수는 합섬원료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설비능력의 확충과 아울러 합성수지, 합성원료 및 합성고무 등 3대 유도품의 평균 가동률이 전월의 89%에서 92%로 높아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한 1,106천톤에 달하였다. 특히 합섬원료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1%나 급증세 하였다. 합섬원료의 내수는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화섬경기의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내수는 관련산업의 경기위축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한편, 수출은 생산물량의 급증과 合成수지 및 合纖고무의 내수부진에 따른 여유물량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4.6% 증가한 441천톤에 달하였다. 주요 유도품의 수출물량 증가로 석유화학제품 전체의 수출금액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8.4%의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합성수지의 경우 최근의 가격하락으로 수출금액 증가율이 수출물량 증가율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어 향후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9월중 국제가격은 동남아시아의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국의 공급확대로 합섬원료를 제외하고는 8월에 이어 약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유도품의 9월중 동남아시아 시장 가격을 살펴보면 합섬원료의 가격은 폴리에스터 경기호조의 지속으로 보합세 내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6. 9월			1997.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306	△2.6	2.3	3,572	△2.0	17.6	31,168	7.4
輸 出	452	△2.1	△16.9	535	△3.5	17.4	4,924	12.4

석유화학 (千M/T, %)

	1996. 9월		1997.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879	△2.1	15.2	1,106	△0.3	25.8	8,907	19.6
• 出 荷	921	5.1	19.0	1,094	△1.2	18.8	8,781	19.5
(內 需)	567	△1.6	17.4	653	3.7	15.2	5,536	16.1
(輸 出)	354	18.0	21.6	441	△7.6	24.6	3,245	25.9

시멘트 (千M/T, %)

	1996. 9월		1997.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5,119	1.7	18.9	5,072	0.4	△0.9	43,494	4.0
• 出 荷	5,204	8.5	11.3	5,145	△5.5	△1.1	45,093	8.9
(內 需)	5,162	9.4	12.4	5,105	△5.8	△1.1	44,642	9.5
(輸 出)	42	△48.1	△47.5	40	60.0	△4.8	451	△30.0

으나, 合成수지의 가격은 전월에 비해 톤당 10~30달러 하락하였는데 최근 가격은 3/4 분기에 비해서는 톤당 100달러 하락한 수준이다. 이러한 최근의 가격 하락세는 동남아시아의 석유화학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국내 업계의 수출채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비금속광물

9월중 시멘트 내수는 월초의 年休와 日氣不順으로 건설공사가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한 5,105천M/T으로 기록되었다. 생산은 생산업체의 改·補修를 위한 가동을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5,072천M/T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 40천M/T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360천M/T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다. 생산업체 보유在庫는 전월보다 273천M/T 감소한 1,562천M/T을 기록하였다.

한일시멘트는 대우와 合作으로 인천에 시멘트기지를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대우가 지난 6월 중국 山東에 완공한 시멘트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1만M/T 규모의 사일로 2基로 구성되어 있다.

시멘트기지 완공후 대우는 시멘트 수입을, 한일시멘트는 국내시장 공급역할을 각각 전담할 계획이다.

쌍용양회는 石炭灰를 원료로 한 재활용 시멘트와 레미콘 생산을 개시하였다. 쌍용양회는 한국전력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年産 60만 M/T 규모의 석탄회 정제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소의 유연탄 연소로 발생하는 석탄회를 정제하고 정제된 석탄회와 폐회를 활용한 시멘트와 레미콘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중공업은 중국 및 대만의 기업과 合作으로 中國에 시멘트공장을 세워 年産 1,600천M/T 규모의 2기로 2001년 完工하여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으로도 판매될 계획으로 있다.

◇ 섬유

9월중 섬유수출은 면직물과 모직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류제품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화섬F사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1,49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品目別로는 섬유원사의 수출이 폴리에스터 SF의 수출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출물량 조정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75백만달러에 그쳤으며, 섬유사류의 수출도 그동안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폴리에스터 F絲의 직수출이 急減함에 따라 금년들어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인 9.4% 증가한 136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직물류의 수출은 主輸出品目인 폴리에스터직물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편직물과 모직물의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한 835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섬유제품류의 수출은 수출비중이 높은 일본, 홍콩지역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류의 對美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한 453백만달러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미국, EU,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폴리에스터직물 및 의류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일본, 홍콩 등으로의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입은 그간 증가세를 보여온 의류 수입이 국내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어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한 438백만달러에 그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새한은 국내 최초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인체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맥반석을 함유한 폴리에스터 SF인 'ELVAN'을 개발하여年間 12,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동에 들어갔다.

同 제품은 천연광석인 맥반석의 원적외선 방출, 유해물질 제거 등 건강보조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인체와의 접촉이 많은 이불, 베게, 등의 침장류와 부직포, 패딩, 완구 등의 재료에 이용될 예정이다.

◇ 조 선(造船)

9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현대, 대우중공업 등 대형조선업체의 VLCC(초대형 유조선) 수주가 다시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5배, 전월대비 7.2배의 큰 폭으로 증가한 21척 1,906천G/T을 나타내었으며, 1~9월까지 총 수주량도 전년동기대비 187.4% 증가한 144척 8,721천G/T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월까지 총 수주금액은 선가 하락의 영향으로 물량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전년동기대비 123.7% 증가한 67.2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쳐 아직 채산성면에서는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9월중 건조실적은 수주호조 지속에 따른 충분한 일감확보로 가동률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5.2% 증가한 13척 577천G/T을 기록하였으며, 9월말 현재 수주잔량도 전년동월末 대비 44.2% 증가한 310척 16,832천G/T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업계 사상 최고치를 更新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호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주선종인 유조선의 선가가 90년대 들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응조치로서 고부가가치船의 하나인 석유제품운반선의 수주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석유제품운반선은 일반적으로 일반유조선보다 톤당 船價가 비싼 고부가가치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中東 등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업계는 수익성확보 차원에서 석유제품운반선에 대한 영업활동을 크게 강화하여 9월까지 동선박은 전년동기대비 16배 증가한 27척 973천G/T의 수주실적을 기록, 전체 수주량의 11.2%를 차지함으로써 유조선, 벌크케리어, 컨테이너船에 이은 새로운 주력 수주선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 선 (千G/T, %)

	1996. 9월		1997.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 注	345	△38.8	△58.5	1,906	624.7	452.7	8,721	187.4
• 建 造	372	△27.1	△43.1	577	△6.6	55.2	4,982	△5.1
• 受注殘量	11,677	△0.1	△12.3	16,382	8.6	44.2	16,832	44.2

◇ 해 운

9월중 乾貨物市況은 月初부터 가을철 곡물 수확기 도래에 대한 기대심리로 곡물운반선

의 운임이 강세를 보였으나, 月中半 이후 한국, 일본, 중국 등 극동지역국가들의 휴일도래에 따른 파나믹스船型的 成約減少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9월중 종합지수(MRI)는 전월의 247.9에서 2.6포인트 증가한 250.5를 기록하였으나 아직까지 작년말의 257.0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탱커市況은 지난달 대규모 成約에 따른 극동 정유사들의 재고비축 完了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용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인 조정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9월중 탱커운임지수(WS)는 전월의 87.2에서 5.9포인트 떨어진 81.3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지난 年末의 60.8보다 33.7% 상승한 수준으로 강해기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시황의 장기不況 및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支給利子 부담가중과 환차손 발생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은 수익성제고 및 주력선단 교체를 목적으로 중고 컨테이너船 7척을 매각처분한 후 재용선하여 사용키로 하고 1,200TEU급 6척도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同社는 이번 선박 매각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수익성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도 평가이익 실현을 통한 수지개선을 위해 선박 6척과 부산·포항사육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신규 선박발주를 앞둔 일부 업체는 선박발주를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성악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단기적인 대응책으로서 보다 중장기적인 수익성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二. 대외거래

◇ 수 출

10월중 수출은 반도체의 64MD램, 비메모리 및 조립공정 분야 등에서 수출신장세가 지

品 目 別 輸 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9		96. 1~9월		97. 8月p		97. 9月p		97. 1~9月p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食料및消費財	2.4	△0.7	22.3	6.7	2.5	1.4	2.4	0.5	21.6	△3.3
原料 및 燃 料	5.1	23.1	44.1	24.1	6.0	4.0	7.2	40.2	58.7	32.9
輕工業製品	25.6	4.3	236.6	7.7	27.5	10.6	25.9	1.1	251.0	6.1
纖維類	13.8	△3.3	126.9	△2.7	14.2	1.7	14.3	3.3	131.5	3.7
신 발 類	0.7	△30.4	6.7	△27.7	0.4	△38.6	0.4	△37.3	4.7	△29.0
旅行用具	0.4	△18.0	4.2	△19.0	0.3	△26.9	0.3	△32.3	3.2	△23.9
重化學工業製品	66.8	△15.0	639.5	2.0	74.9	17.2	79.9	19.6	665.9	4.1
化 工 品	6.1	2.1	51.9	△4.3	7.7	40.8	8.3	37.4	64.0	23.2
金屬製品	5.8	△24.9	53.2	△30.1	6.9	20.7	7.4	28.2	62.8	18.0
機 械 類	12.5	4.8	107.7	11.0	13.4	22.6	15.0	20.7	120.8	12.1
電氣·電子製品	19.0	△20.9	179.1	△2.9	23.9	36.3	23.4	23.3	192.4	7.4
自 動 車	9.1	27.8	77.7	21.0	8.0	△1.0	8.5	△6.9	85.7	10.3
船 舶	3.0	△57.4	47.5	26.9	4.5	△0.8	5.5	81.1	39.5	△16.9
統 計	99.9	△8.9	942.5	4.4	110.8	14.4	115.4	15.5	997.1	5.8

속되어 전년동월대비 27.4% 증가한 16.7억 달러, 철강, 석유화학, 섬유직물 등 반도체 이외의 수출이 3.6% 증가한 109.2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125.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중 품목별 수출은 경공업제품이 종이류, 타이어, 튜브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섬유류, 귀금속 등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신발류, 운동용구 등에서 계속 부진을 보여 1.1% 증가에 그쳤다. 중화학공업제품은 자동차가 기아그룹 부도유예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자제품, 화공품, 금속제품, 기계류 등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19.6% 증가하였다. 따라서 9월중 전체수출은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한 115.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

10월중 수입은 경기침체의 지속과 대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설비투자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원화환율의 급격한 切下로 인한 수입업체들의 채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년동월의 135.4억달러보다 7.0% 감소한 12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중 품목별 수입은 食料 및 소비재(△3.3%)는 커피 등 직접소비재가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耐久·非耐久材와 곡물류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본재(△7.6%)도 금속공작기기 등 기계류와 수송장비 등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기·전자는 반도체, 유선통신기기, 전기계측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원자재(9.6%)는 원유, 철강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

品目別輸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9月		96. 1~9月		97. 8月p		97. 9月p		97. 1~9月p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食料 및 消費財	13.8	14.9	124.0	20.3	13.3	△15.2	13.3	△3.3	120.6	△2.8
穀物	2.8	25.8	24.7	37.9	1.9	△38.2	2.3	△15.8	19.7	△20.3
直接消費財	3.6	15.1	35.0	13.7	4.2	4.8	3.9	7.5	36.5	4.3
耐久財	4.3	3.4	41.2	12.0	4.0	△20.9	4.1	△4.1	40.6	△1.4
非耐久財	3.1	24.1	23.1	31.3	3.2	△9.3	3.0	△3.8	23.8	3.0
原料 및 燃料	55.4	△3.5	547.3	10.4	61.3	1.3	60.7	9.6	578.1	5.6
原油	12.4	24.6	98.6	22.0	12.7	△0.3	14.6	17.5	130.4	32.3
輕工業原料	4.4	△23.6	45.5	△9.7	4.3	△11.1	4.1	△7.0	41.4	△9.0
化學製品	6.5	△0.4	64.5	3.3	7.0	△1.7	6.6	2.4	65.4	1.4
鐵鋼材	4.3	△36.9	52.3	11.0	4.9	△10.7	4.9	13.9	43.6	△16.6
資本財	44.9	△4.1	427.1	7.2	40.4	△24.5	41.5	△7.6	402.3	△5.8
機械類	18.6	3.2	183.2	6.5	14.6	△33.9	15.7	△15.3	152.0	△17.0
電氣·電子	16.3	△2.9	155.1	8.6	19.8	10.8	19.2	17.8	177.4	14.3
輸送裝備	4.1	△41.0	36.4	△2.7	1.1	△82.9	1.9	△54.3	24.6	△32.5
內需用	76.4	△1.4	740.6	11.3	71.6	△20.5	73.7	△3.6	719.9	△2.8
輸出用	37.6	△2.6	357.8	7.9	43.4	9.7	41.8	11.0	381.0	6.5
總計	114.0	△1.8	1,098.4	10.2	114.9	△11.3	115.5	1.2	1,100.9	0.2

에 따라 9월중 전체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의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 증가에 그친 115.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국제수지

9월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흑자확대로 적자폭이 전년동월의 △15.1억달러보다 크게 개선된 4.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4.1억달러로서 수출이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 등의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낮은 증가에 그쳐 전월의 0.7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늘어났다.

무역외수지는 △7.6억달러로서 투자수익적수지적자가 외채증가에 따른 對外이자지급 증가로 크게 늘어난데다 운수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 적자도 각각 항만운항경비증가 및 여행수입감소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폭이 전년동월의 △5.1억달러보다 확대되었으며, 반면 이전수지는 △0.7억달러로서 전년동월의 △0.8억달러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었다.

한편, 9월중 자본수지는 4.4억달러의 導入 超를 보여 純도입 규모가 전월의 △0.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자본도입은 4.0억달러로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어든 데다 외국인주식투자 자금의 순유입규모의 감소, 수입둔화에 따른 무역관련

신용도입의 저조, 개발기관의 단기부채 감소 등으로 도입규모가 전월의 13.7억달러보다 축소되었으며, 자본재流出(△0.4억달러)은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가 감소한데다 개발기관의 단기자산 및 단기 민간외화예금의 감소로 유출규모도 전월의 14.1억달러보다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9월중 종합지수는 적자폭이 전월의 △18.0억달러보다 축소된 9.8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국 제 수 지 (억달러)

	96.9月	96.1~9月	97.8月	97.9月	97.1~9月
經常收支	△15.1	△172.8	△7.6	△4.3	△123.8
貿易收支	△9.2	△112.2	0.7	4.1	△59.4
輸出(FOB)	99.9	938.2	111.5	116.4	1,008.7
輸入(FOB)	109.1	1,050.4	110.8	112.4	1,068.1
貿易外收支	△5.1	△54.9	△7.3	△7.6	△58.6
輸 入	25.0	223.9	27.8	28.3	248.6
支 給	30.1	278.7	35.0	35.9	307.3
移轉去來	△0.8	△5.7	△1.0	△0.7	△5.7
資本收支	△3.9	121.9	△0.5	4.4	128.7
資本導入	4.1	191.5	13.7	4.0	179.7
資本流出	8.0	69.6	14.1	△0.4	51.0
誤差및漏落	8.6	6.0	△9.9	△10.0	△39.0
綜合收支	△10.5	△45.0	△18.0	△9.8	△34.1
(外換保有額增(△)減)	7.2	△1.2	25.3	7.1	28.1